



지난 해 더 CJ컵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세계랭킹 1위 브룩스 켈퍼(왼쪽 사진)와 선수들의 사인을 받은 갤러리 모자(우측).

사진제공 | CJ그룹

39야드 늘어난 ‘마의 6번홀’…누가 웃을까?

10월 17일 제주서 나흘간 티오프
상금 975만 달러…메이저급 규모
미켈슨·켄카 등 세계 강자 총집합

10월 17일부터 나흘 간 제주에 위치한 클럽나인브릿지에서 개최되는 THE CJ CUP @ NINE BRIDGES (이하 더 CJ컵)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회 of 총 상금은 지난해보다 25만 달러 오른 975만 달러(우승 상금 175만 5000달러)로 2018~2019 PGA 투어 정규 대회 기준으로 4개의 메이저 대회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WGC 대회를 제외하면 가장 큰 상금 규모이다.

더 CJ컵은 상금뿐만 아니라 출전 선수, 코스 난이도, 갤러리 편의 등 세계 최고의

대회를 향해 발전해 나가고 있다.

2017년 더 CJ컵은 이 해에 개최된 336개 전 세계 프로골프 대회 중 출전 선수 구성랭킹 22위에 오르며 막강한 필드 구성을 자랑했다. 이는 초대 대회이자 미국 본토가 아닌 대회로는 놀라운 순위였다. 지난해에도 페덱스 컵 랭킹 50위 중 29명이 출전하는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찾았고, 또 찾고 싶어 하는 대회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CJ그룹은 올해 선수 라인업을 더욱 강화했다. PGA 투어 통산 44세의 살아있는 전설 필 미켈슨과 ‘메이저 3승’ 조던 스피스가 처음으로 제주도를 찾는다. 마스터스 우승자 패트릭 리드와 세르히오 가르시아도 대회 출전을 확정했다. PGA 투어의 떠오르는 신예 군단인 매튜 올프, 폴린 모리

카와 등도 한국의 임성재와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올해 코스 전장은 7241야드로 지난해보다 57야드가 늘었다. 8개 홀의 페어웨이 폭을 좁히는 등 코스 난이도를 올려 더욱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6번 홀이 39야드나 늘어나 파4 중 가장 긴 홀(495야드)로 플레이 되어 선수들이 공략하기 어려운 홀로 변신했다.

지난 3년간 클럽나인브릿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를 펼치기에 손색이 없도록 관리되어 왔다. 페어웨이 잔디의 예지고를 2017년 11mm에서 2018년에는 10mm로, 올해는 9mm로 관리하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했다.

더 CJ컵은 갤러리들이 보다 생생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

지 신경 썼다. 우승자가 결정되는 18번 홀의 갤러리 스탠드를 기존 140석에서 220석으로 늘려 더욱 많은 팬들이 결정적인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11번 홀과 17번 홀티잉 그라운드 주변에 관람 데크를 신설해 세계적인 선수들의 시원한 장타와 수준 높은 경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더 CJ컵은 전 세계 226개국, 10억 가구에 총 23개 언어로 생중계돼 대회는 물론 한국의 자연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처럼 더 CJ컵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세계 최고의 골프 이벤트로 성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PGA 투어 대회에서 세계 최고의 PGA 투어 대회로 나아가는 더 CJ컵이 기대되는 이유다.

허보람 객원기자 hughandong@naver.com

지상파까지 뚫은 e스포츠 더 거세진 대중화의 바람

셋다운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 속에서도 한국 e스포츠는 성장을 거듭해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매년 발간하는 ‘e스포츠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는 지난 2014년부터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603억 원에서 2017년 973억 원으로 3년 만에 370억 이상 몸집을 불렀다.

e스포츠는 지난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시범종목으로 채택돼 지상파에서 중계가 됐다. 그동안 철저히 비주류로 여겨졌던 e스포츠의 지상파 입성은 단연 화제였다. e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었다. 지상파 방송국은 젊은층들의 선호도가 높은 e스포츠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잇따라 프로그램을 론칭했다.

가장 먼저 나선 방송국은 2016년 ‘게임쇼 유희나락’이라는 게임 예능을 론칭해 2년 간 방영한 SBS였다.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에는 ‘e스포츠 매거진 GC’라는 이름의 e스포츠 매거진 프로그램을 지상파 채널에 론칭했다.

KBS가 뒤를 이었다. 지난 7월 케이블 채널 KBS N 스포츠에서 ‘왕좌e게임’이라는 게임 서바이벌 프로그램 제작을 발표했다. MBC는 올 추석을 맞아 인기 명절 프로그램 ‘아이돌스타 선수권대회’에 신설 종목으로 e스포츠를 등장시켰다. e스포츠가 어느덧 추석 안방까지 진출한 것이다.

이제 막 대중화의 기반을 닦고 있는 e스포츠가 스포츠로서의 가치를 전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분명한 건 긍정적인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현 명예기자

(고려대 국제스포츠학부) dinghyong@korea.ac.kr



성균관대학교 배구 전력분석관 정재현. 사진제공 | 청춘스포츠

배구선수→전력분석관…대학생 정재현의 도전

올해 U-21 청소년 남자배구 대표팀에 선수가 아닌 스태프로 발탁된 학생이 한 명 있다. 바로 정재현 전력분석관(성균관대)이다. 2017년에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해 배구선수 생활을 이어가다 2학년이던 지난해 전력분석관으로 전향했다. 올해는 실력을 인정받아 청소년 국가대표팀 전력 분석관으로 발탁됐고, 월드컵이나 국제경기에서 국제기록도 맡고 있다.

정씨가 분석관의 길을 걷게 된 데에는 부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창시절부터 운동보다 분석에 더 관심이 많았단다.

“중학생 때부터 동료 선수들과 전력을

짜고 플레이를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마침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학생 전력분석관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이 내 길이다 싶어 전향했죠.”

분석관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한 후 그가 가장 먼저 챙긴 무기는 ‘열정’이다. 선배 분석관에게 매달려 가르쳐 달라고 하기도 하고, 배구부 전지훈련으로 갔던 일본에서는 일본팀 분석관을 따라다니며 공부했다. 이후 혼자 일본을 다시 찾아 전력분석을 배우기도 했다.

하지만 전력분석이 확률을 가지고 하는 일이다 보니 ‘정답’이 없었다. “확률을 따

월드리그 등 국제경기 기록도 맡아 “전략 짜고 플레이 맞추는 데 빠졌죠”

지는 일이니까 늘 불안해요. 경기에 지면 제가 분석한 것들이 안 맞아서 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김상우 감독님께서 많이 믿어주시고 선수들이 잘 따라줘서 감사하죠.”

그의 꿈은 배구 분석관을 하나의 장르로 만드는 것이다. “졸업하고 바로 프로팀에 도전하기보다는 외국 대학팀에서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와 다른 배구 스타일을 경험해서 분석관이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신인주 명예기자(부산외대 영성문화융합학과) dlswn 943@naver.com



교육·퍼즐

에듀윌

마지막 절대평가 기회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2차 시험대비?…학습한 내용 총정리가 더 도움된다”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 2차 시험이 9월28일에 실시된다. 2차 시험에서는 주택관리 관계법규와 공동주택 관리실무 과목의 이해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과목당 50분씩 주어지는 2차 시험은 주관식 문제가 출제되면서 더욱 꼼꼼한 학습과 마무리가 중요하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절대평가 방식에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주택관리사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높이고 합격자 수를 제한하게 되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취업은 현재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관리사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현재 새로운 내용을 익히기보다는 학습한 내용을 총정리하고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 시험과 문제 유형 및



완성 풀서비스’를 마련했다. 시험 전 과정에서는 주택관리사 수험생이 자주 틀리는 문제를 엄선한 ‘자주 틀리는 80제’와 마지막 점검을 할 수 있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제공한다. 또한 ‘핵심 지문 60선’을 마련해 필수로 학습해야 하는 개념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관리사 시험 후에는 자동채점 서비스를 비롯해 실시간 시험결과를 분석, 제22회 시험 해설 특강 등 주택관리사 수험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이도가 비슷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제22회 2차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합격완성 풀서비스’를 마련했다. 시험 전 과정에서는 주택관리사 수험생이 자주 틀리는 문제를 엄선한 ‘자주 틀리는 80제’와 마지막 점검을 할 수 있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제공한다. 또한 ‘핵심 지문 60선’을 마련해 필수로 학습해야 하는 개념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스도쿠문제

		9	8		6	4		
	7						6	
	6		9		4		8	
7		3		6		2		1
			5		1			
1		8		2		6		5
	3		2		9		7	
	4						1	
		1	3		7	9		

6		3		7		1		4
			4		3			
4				8				3
	3			4			6	
2		7	9		6	4		8
	4			2			3	
3				5				6
			6		8			
5		4		9		7		1

■ 스도쿠정답

9	6	2	7	8	1	8	2	
2	1	8	9	8	9	2	7	6
7	8	6	1	2	9	8	9	
9	7	9	8	2	7	8	6	1
8	8	2	1	6	9	9	2	7
1	6	2	8	9	7	8	9	2
2	8	1	7	9	6	2	9	8
6	9	9	2	8	1	7	2	9
8	2	7	9	7	8	6	1	9
1	8	2	2	6	7	9	9	9
9	7	8	1	9	2	7	6	2
9	6	2	7	9	2	8	1	8
2	8	6	9	2	1	9	7	8
8	1	7	9	8	6	2	9	2
2	9	9	2	7	8	8	1	8
8	2	9	1	8	9	2	7	4
6	2	8	8	9	7	9	2	1
7	9	1	6	2	2	8	8	9